

효정지도 孝情之道 시리즈 ①
참어머님 생애동화 2

하늘의 사랑스러운 딸 참어머님

김순민 글 · 인미 그림



효정지도 孝情之道 시리즈 ①
참어머님 생애동화 2

하늘의 사랑스러운 딸 참어머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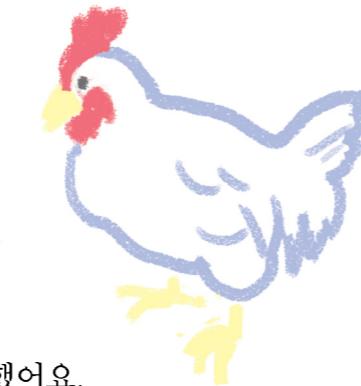
김순민 글 · 인미 그림



효정문화원
孝情文和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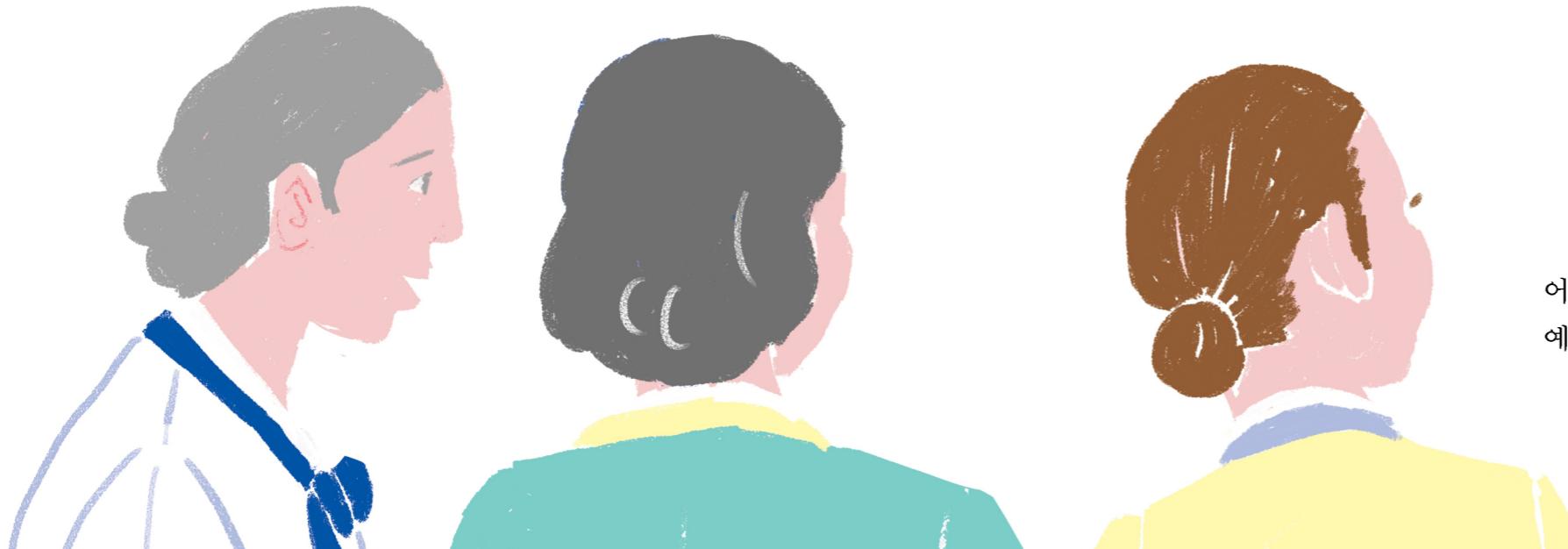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어린 참어머님은 아장아장 걸으며 만나는 동네 어른들께 인사했어요.
그런 참어머님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어머, 어쩜 한 살밖에 안 된 애가 저리도 인사성이 밝을까요.”
“뉘 집 딸이에요? 눈, 코, 입 하나하나 안 예쁜 곳이 없네요.”



“참 곱지요? 저 아이가 학자잖아요.
한 살이 되기도 전에 걷고, 말도 또박또박 그렇게 잘한대요.”
“어머나, 학자 엄마는 좋겠다. 저렇게 예쁘고 영리한 딸이 있어서.”

어린 참어머님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할 만큼
예쁘고 총명하게 자랐어요.



“할머니,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 옥수수는 이렇게 따는 거야. 한 번 해 보렴.”
“이렇게요?”
“그렇지!”

어린 참어머님은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집 뒤뜰에서 자란 크고 잘 익은 옥수수를 땊어요.

“어머니, 옥수수가 많으니 동네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어요.”
“우리 학자는 참 착하기도 하지.”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함께 딴 옥수수를
한 솥 가득 삶아 바구니에 담아 놓고
오고 가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 뒷동산에 할미꽃 꼬부라진 할미꽃
젊어서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하하하하 우습다 졸고 있는 할미꽃
아지랑이 속에서 무슨 꿈을 꾸실까 ♪

“허허허. 우리 학자는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
“우리 학자는 태어났을 때 울음소리도
노랫소리 같았잖아요. 호호호.”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에는 율동도 해 볼까요?”
“그래그래.”

가족들은 모두 사랑스럽게 노래를 부르며
예쁘게 율동하는 어린 참어머님을 보며 함박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우리 어디 가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단다.”

어린 참어머님은 외할머니, 어머니 손을 잡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학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넓은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게 해 주세요.”

“아멘.”

기도를 마치신 어머니는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드리는 어린 참어머님을 소중하게 안아 주셨어요.

“예쁘기도 하지, 하나님의 귀한 따님!”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 참어머님은 온 세상에 부러
울 것 없이 행복했어요.





참어머님은 하나님의 딸로,
하늘의 신부로 소중하게 자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에서 정성을 많이 들이던 분이
어린 참어머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여섯 살도 안 된 어린 소녀가
하늘의 신부가 될 운명을 타고났구나.”



참어머님이 여섯 살이 되는 해였어요.

이 무렵,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남한으로 가라.”

외할머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린 참어머님은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어두운 밤길을 헤치며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어머니, 깜깜해서 잘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지켜 주고 계신단다.”



갖은 고생 끝에 남한 땅으로 들어섰을 때였어요.
조용한 산속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남한으로 무사히 내려온 기쁨에 어린 참어머님이 노래를 흥얼거린 거였지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깜짝 놀라 어린 참어머님의 입을 얼른 막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누구야?”라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식간에 얼어붙듯 끔짝도 못 하고 서 있는데, 남한 군인들이 다가왔어요.

“파님이 목숨을 구했네요. 북쪽에서 인기척이 들려 총을 쏘려다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총부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파님을 데리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남한 군인들은 참어머님과 가족들이 무사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참어머님과 가족들은 제일 먼저
참어머님의 외삼촌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울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외삼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어머님은 막막할수록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외삼촌의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에게 소식을 전해 들은 외삼촌은 부리나케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머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봐요.”

참어머님은 더욱 열심히 기도했어요.
참어머님은 외할머니, 어머니, 외삼촌과 함께
서울에서 살게 되었어요.

“우르르 쾅쾅!”

남한에 내려와 안심하기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 서울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때 북한군의 공격으로 남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어서 짐을 꾸리세요!”

“이 밤에 무슨 일이나?”

“전쟁이 났어요. 어서 피해야 합니다.”

참어머님과 가족들은 외삼촌을 따라 차를 타고 피란길에 올랐어요.





살던 동네를 빠져나와 한강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외삼촌이 다급한 목소리로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쳤어요.

“모두 빨리 내리세요. 빨리! 빨리요!”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차에서 급하게 내려
캄캄한 길가의 언덕 밑에 엎드렸어요.

“쾅!!!”

그 순간 푸른빛과 함께 엄청난 폭발음이 울리며 주변이
대낮같이 훤헤졌어요.
가족들이 건너던 한강 다리가 폭파된 거예요.
다리를 건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참어머님과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상황이었
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덕분에 참어머님과 가족들은 천만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참어머님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어요.

참어머님과 가족들의 고되고 힘든 피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야!”

한 번은 참어머님이 다쳐 피가 철철 났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약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상처 난 곳에서 진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진물이 빠지도록 어렵게 구한 선인장에 밥을 으깨어
상처에 발라 주셨어요.

갖은 고생에 몸이 약해진 참어머님은 감기까지 걸렸어요.

“콜록콜록! 콜록콜록!”

“이 옛을 입에 물고 있어라. 그럼 기침이 멎는단다.”

외할머니가 옛을 구해 와 참어머님 입에 물려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피란 생활이었지만,
참어머님과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효정지도 孝情之道 시리즈 ① 참어머님 생애동화 2

하늘의 사랑스러운 딸 참어머닝

초판 1쇄 발행일 · 2021년 2월 1일

글 · 김순민 | 그림 · 인미
펴낸이 · 윤영호 | 펴낸 곳 · 효정문화원

편찬위원 · 정원주 윤영호
교정 및 교열 · 이길연 | 진행 · 홍성민 | 제작 · (주)HJ스마트에듀 / 더공감
감수 · 김황제 이길연 도현섭 최정은 서다희

출판사 · 모심(HJ스마트에듀) | 등록번호 · 제2020-000351호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7안길 6 우정빌딩 3층 (서교동)
전화번호 · 02-326-1240

ISBN · 979-11-973265-2-3

이 책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값 13,000원



77200

9 791197 326523
ISBN 979-11-973265-2-3
ISBN 979-11-973265-9-2 (전 7권)

